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구주 성탄 우리의 기쁨
- ◎ **알림:** 본당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예배 장소를 건너편 현 중고등부 예배실로 12월 21일 주일부터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온전한 장소로 이전하겠습니다.
- ◎ **성찬축하:** 2014년 성탄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선교회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참여신청 17일까지 심장진 목사) 각 가정에서는 10불 미만의 성탄선물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전야 축하 잔치: 12월 24일 오후 7시 장소: 중고등부 예배실(선물교환, 성경퀴즈 등)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11시 장소: 중고등부 예배실 (봉헌 시간 있습니다).
- ◎ **기도회:** 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삶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주제: 나의 나뉘은 주의 은혜로다(고전15:10)
일시: 12월 16일(화)-20일(토) 시간: 새벽 5시30분 장소: Chapel 실
- ◎ **총회:** 각 선교회 총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회장소: 4남여성교회-친교실 3남선교회-계수실 3여성교회-유아실
2남선교회-찬양대석 2여성교회-본당 뒤 1남선교회-아동부실
1여성교회-친교실 앞
- ◎ **안내:** 2015년 경건서적을 많이 정기구독하여 경건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정혜숙 권사)
생명의 삶: \$75 생명의 삶 영어판(Living Life): \$75 생명의 삶 플러스: \$233
새벽나라(한글): \$68 새벽나라(영어): \$70 목회와 신학: \$285
- ◎ **교육:** 기초 교리, 화요기도반 12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리 수료자:** 김광영, 박경호 백만기, 이정인, 최현철 **화요기도:** 김선화, 김은희, 박덕철, 이광희, 이규임, 이기중, 임병숙, 정혜숙, 한상순, 현석호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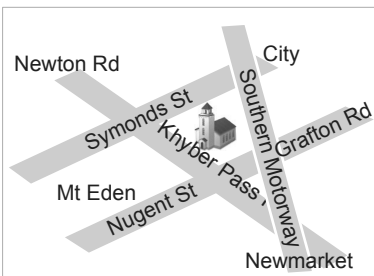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2014년 12월 7일 주일 16권 49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다시 대림절에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 치유자로
간힌 이들에게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관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 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 마음엔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이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찬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이사야 55:1-2
 찬양대
 다함께
 35장. 큰 영화로신 주
 116. 구주강림 2
 사도신경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고성일 장로
 마태복음 25:1-13
 나무십자가 찬양대
건강증, 관촬으세요/이태한목사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정옥자 권사
 하박국 3:1-6
하박국의 기도 2/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준섭 형제

◎ 12월 교회알지

대림절 둘째주일: 12월 7일(주일)
 한주간 특별 기도회: 12월 16일(화)
 -20일(토)
 성탄전야제: 12월 24일(수)
 성탄 축하예배: 12월 25일(목)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수)

◎ 12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이광희/김순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남영수 집사
 다음 주일: 이광희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규연 형제
 12월 17일 수요: 장연식 집사
 12월 17일 애찬: 문일숙 집사
 12월 21일 주일: 박덕철 장로
 12월 21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경건과 절제로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구주성탄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2. 선출된 선교회 임원들이 먼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교회를 이끌도록.
3. 성전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2월 새벽기도회 본문

12월 12일: 예레미야애가 4:11-22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12월 19일: 골로새서 2:8-15 성도의 삶은 십자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12월 26일: 골로새서 3:18-25 일상의 모습이 영성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마다가스카르의 정남현, 이은경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후원자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곳 마다가스카르는 얼마 전 새 정부가 별 무리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받쳐줄 보좌관들이 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있어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현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보좌관들과 내각에서 비협조하여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의 진행이 더욱 늦어졌습니다. 여러 사업 중 특히 전기시설이 시급 하지만 정권의 불안정으로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어 경제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인 '안타나리브'까지 메뚜기 떼가 올라왔고, 빈민촌에서 흑사병(페스트)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며 경제침체속에 물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월급은 바닥을 치고 있어 민생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5세미만의 전체아이들 중 47%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역하는 저희 가정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 한인교회 담임목사직을 겸임하며 얻는 영적인 유익이 참으로 많은 반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교회를 섬기는 일을 내려놓을 생각인데 내년에도 한인교회 담임목사직을 겸임해달라는 이곳 교회의 요청이 있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선교사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거나 망각할까 염려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여 순종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이곳도 흑사병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으로 인해 옮겨지는 질병인데 날마다 쥐벼룩에게 물려 많이 고생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역에 더욱 힘쓰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됨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쁜소식이 후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2015년 한인교회 담임목사직에 대해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2. 흑사병에 대해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루 속히 흑사병이 없어지도록
3. 저희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안에서 600km 떨어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로 길이가 1600km,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 종교의 자유는 있는 나라)